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3. 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3월 8일(수) 14:30~18:27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23호 및 제24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3호 『(주)매일방송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및 의결안건 제24호 『(주) OOOOOOOO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일괄 재상정함.

- (위원) 동 안건에 대해서는 감리위, 지난 증선위를 통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음. 감리착수 계기인 법원 1심 선고 이전에 자진수정 공시한 점, 2011년 위반행위가 수정되지 않아서 2017년, 2018년 위반이 발생했고 동일 배경 위반사항에 대해서 연도만 달리한 추가 감리라는 점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음.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에 대해 일정수준 감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증선위원들 간에 합의된 의견임.
- (위원장) 제23호 및 제24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먼저 제23호의 경우 ①금번 조치대상인 '17~'18년의 위반은 '11년의 위반행위가 수정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써 피조치자 입장에서는 동일 원인행위에 대해 중복제재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점, ②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이전에 재무제표를 자진하여 수정·공시한 점, ③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비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④외부감사법 과징금 부과대상위반행위('18년 사업 보고서 공시, '19. 4월)가 제도 도입('18. 11월) 직후에 발생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⑤마지막으로 외부감사법 과징금 도입의 취지는 과거에 일어난 회계부정을 소급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이후의 회계부정을 예방하려는 것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재의 과징금 부과액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외부감사규정』 [별표7] 양정기준 중 감경사유인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회사의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원안에서 50% 추가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제24호 안건의 경우 회사는 임직원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임직원에게 대한 미수금으로 허위계상하였음. 다만, ①금번 지적사항이 앞서 살펴본 관계 회사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②비상장 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해관계자가 적은 점, ③외부감사법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18년 감사보고서 공시, ‘19. 4월)가 제도 도입(‘18. 11월) 직후에 발생하여 관련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시간이 부족하였던 점, ④마지막으로 외부감사법 과징금 도입의 취지는 과거에 일어난 회계부정을 소급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이후의 회계부정을 예방하려는 것에 있었던 점 등을 조치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외부감사규정』 [별표7] 양정기준 중 감경사유인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회사의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원안에서 7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